

남가주목사회 기독교회관 건립 계획

2백만불 예산에 2년 계획 잡고 협력 요청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이하 목사회)가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곧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6시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대 회장은 "임원들과 남가주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기독교회관을 세우는 것이 큰일이고 보람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45대 회기의 목사회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회관을 건립한 후, 이곳에 이민교회 역사의 발자취를 보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관은 한국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을 모델로 하고,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채소, 목사회 사무실, 기독교박물관 등이 자리 잡게 된다.

목사회는 앞으로 기독교회관 건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임원들이 기독교회관 건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립을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해서 펀드레이징을 할 것이고 예산은 약 200만불, 기간은 2년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대 회장은 "기독교회관 건

립 자금 확보를 위한 찬양제, 체육대회, 일일 식당과 같은 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미국 내외 본국의 기독교 단체들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위해 남가주 언론계를 위해서 각 교회,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기독교인 목소리 모아 성령 운동 시작



이날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남가주빛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용덕 목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뉴스피릿무브먼트 포럼

및 기도회를 열고 미주 지역의 영적 침체와 타락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한인교회들의 참여를 구했다.

뉴스피릿무브먼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사람을 깨우

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성령의 시대로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다.

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회복운동과 성령 충만한 세계를 만들자는 성령회복운동, 모든 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성경회복운동을 지향한다.

회원은 1차적으로 십만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고, 순수한 헌금과 집회 헌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박 목사는 이 운동이 출범하기 전 준비 모임 형식의 포럼에서 동성애가 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의 위기에 대해 소개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기독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주장하는데 크리스천들의 영적 목소리는 아주 작고 미미한 지경이다.

이들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 커피 전문점의 경우는 기부금의 100%를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관련 단체에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결혼보호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후원하고 있는 셈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 70여개의 대기업들이 연방결혼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대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영적 침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이번 뉴스피릿무브먼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 5면에 계속

INTERVIEW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 사랑 전해 온 박세록 장로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후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 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고 웨인주립대학교, UC데이비스 등 명문대학교에서 불임 치료 분야의 교수와 의사로 큰 명성을 쌓았다.

소위 더 할 수 없이 좋은 스페이 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돈이라면 "이제 충분하다"할만큼 벌었고 명예도 "족하다"할만큼 얻었다. 샘 복지재단(SAM Care) 대표 박세록 장로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잡았다. 그 환경적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크게 회심하고 인도에서 의료 선교에 눈을 떴다. 북한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해 북한 사역을 시작해 병원을 설립하고 의술을 펼쳤다.

빨갱이라는 욕부터 생명의 은인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가 그에게 따라 다녔다. 그러나 결국 병원은 빼앗기고 "기독교를 포교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선 쫓겨나게 됐다. "이젠 북한에서 고생 안 해도 된다"며 안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당신의 조국은, 당신의 교회는, 당신 자신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의 질문에 큰 충격을 받고 그는 종종 접경 지역에서 다시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박세록 장로

그는 "목숨을 살려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23년간의 사역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게 됐다. 물론 그것보다 상위의 원칙은 "정치적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앙 양심에 의해 하나님이 여시는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사랑의영양특별식품을 제작해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응급 식량 구호와 의학 혜택을 전하러는 박세록 장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본다.

→ 2면에 계속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장재효 목사 초청 집회

집회 일정

- 1월27일(금) 오후 7시 남가주광영교회(정우성 담임목사)
- 1월29일(일) 오전 11시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류준영 담임목사)
- 2월5일(일) 오전 11시 조이시티교회(강산성 담임목사)
- 2월8일(수) 오후 7시 엠마오장로교회(김민섭 담임목사)
- 2월12일(일) 오전 11시 엘바인 한민음교회(최상준 담임목사)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서번역연구원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위원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문홍신(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주 관 : 국제성서번역연구원(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엠마오장로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남가주광영교회, 주님의교회

샘 복지재단 대표 박세록 장로 인터뷰

북한 돕다 쫓겨나고 탈북자 돕다 쫓겨날 뻔 하더라도



현재 샘 복지재단은 단동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를 통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역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 사역에 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샘 복지재단(SAM Care)의 SAM은 Spiritual Awakening Mission의 약자입니다. 즉 단어 자체가 영적 각성과 선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 먼저 영적 각성을 체험해야 한

다는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일단은 육의 생명이 살아 있어야 영혼도 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의료 혜택이 열악한 국가에서 의료 활동을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이 시작되었나요?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공부를 마친 후,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대학교 의대의 교수이자 의사로 재직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산부인과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호르

몬 분야와 불임 분야가 전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 불베이대학교가 웨인대학교로부터 현미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산부인과 수술 기술을 도입하기 원했는데 학교 측에서 저를 이끄는 3주간 과정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이 한참 못살던 당시를 겪으며 배부르게 한번 밥 먹어 보는 것이 소원이어서 죽어라고 공부해 미국에서 인정받는 의사, 교수가 됐지만 인도에 가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를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몇 년동안 새까맣게 잊어 버렸던 과거를 떠올

리게 됐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소풍으로 집의 벽을 막아서 비가 오면 소풍이 흘러 내리는 집 안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고 콜레라, 이질 같은 질병이 창궐해 길에서 사람이 죽어 갑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터에서 대충 태운 후, 그걸 강물에 버립니다. 그럼 죽은 사람의 손이나 입에서 나오는 금을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그 강물에 수도꼭지 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한번 불타 없어지는 것이구나"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한 신문에 인도에 다녀온 경험을 글로 썼는데 그 글을 보고 독자들이 좋은 일에 쓰라며 무려 1만2천불을 제게 보내 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인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 지도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잡을 무렵, 갑자기 동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이 의료 상황이 좋지 않는데 재미동포 의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과 동료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저는 "가야 한다"는 소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인이 북한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죽을 각오"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중국 공항에 내렸고 북한에 도착해서도 초긴장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커질수록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강해졌습니다. 북한에 병원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인도 사역은 모두 현지인 목회자에게 인수인계 해 주고 저는 북한을 돕기로 했습니다. 돈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북한에 병원을 짓는다"는 말에 모두 손사래를 쳤지요. 그런데 결국 1995년에 5백 병상을 가진 평양제삼인민병원

을 건축해 내고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마련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내 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고 나니 "기독교를 포교한다"며 당국에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병원도 빼앗기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이제 병원을 가지었으니 제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북한의 상황을 간증하며 모금을 하니 부

조중 접경 지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은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마침 좀 쉬어 보려는 참에, 제네바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중 지역의 탈북자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래서 "좀 알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다니며 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

의료 활동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북한에 병원 건립 후, 포교 이유로 쫓겨나 탈북자 인권에도 관심 갖게 돼

다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등 엄청난 지원이 북한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된 것이죠.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그렇게 쫓겨나고 나니 어떠셨던가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곳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이란 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게 대한 거짓된 루머들도 저를 따라 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 육도 안 먹고, 좀 편하게 살자"고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이나 분통터진다는 생각이 아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사역은 아니더라도

는다면 살릴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영똥한 데 노력했구나"란 후회가 들었습니다.

고등판무관실에서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제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첫째는 "당신의 조국은 탈북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두번째는 "당신의 조국에는 그렇게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은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번째는 "당신은 그동안 뭘 했는가"였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국경 근처에서 의료 활동을 했고 한번은 몇시간을 굶으며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 단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의주 맞은편입니다. 저는 "이 곳이다"란 생각이 들어 단동복지병원을 개원했습니다. 100개 병상을 가진 병원이었습니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이민권이 부당하게 부정된 경우, 추방위기에 처한 분,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취업전문의 직업대학 ORT 연방정부 학력공인대학.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ESL,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Advice: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FREE Food Stamp, HEAP(Utility Ball Payment), Social Service,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그런데 그 기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자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이나 교류를 위해 단동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하나 두고 단동에는 바람이 불면 옥수수가 물결치는 북한에는 황량한만 같았습니다.

우리 병원 주변도 개발이 들어갔는데 우리 병원이 지역 개발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매일 와서 온갖 공사를 시끄럽게 벌

요즘은 한국식 현대 건강검진 센터가 중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설립돼 고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동복지병원도 후원자의 후원을 받던 기관에서 자립하는 기관이 되고 향후 2년 내에 다른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로 커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을 왜 사서 하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 지원은 지양해야 고난과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어 주님 사랑 더욱 전하고 싶어

이는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릴 쫓아낼 심산이었죠. 병원 앞에서 땅을 파면 온 병원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병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원장은 이곳에 안 나타나는데 좋다고 해서 저는 한동안 이곳을 떠나 있었는데 그즈음 "병원이 망했다", "원장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병원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부 측에 "이제 관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때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저뿐 아니라 온 가족이 23년간 매달리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이 꼭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란 것은 안방에 드러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어느 곳이든 핍박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자 위생국장, 당시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빈곤층을 위한 구제를 해야 하는데 노후가 없으니 너희가 도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동 한복판 시내에 병원을 열어 주었습니다.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쳐 준 덕에 순식간에 병원이 재개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그런 교만한함이 적어질수록 고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고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됩니다.

저는 원래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 교회까지 간 후 주차장에서 음악이나 들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얼마나 속이 뒤틀렸는지, 미국 중부 지역에 한국 목회자들이 집회만 오면 저희 집으로 목회자를 모시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남편 신앙을 불붙여 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당시 제가 돈을 꽤 잘 벌고 이름도 알려졌던 때라 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제 집만은 기억할 정도였으니까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박 장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개원 예배 때에는 십자가까지 크게 걸어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의 주요 관리들은 물론 경찰국의 고위 관리들도 모두 개원식에 참석해 격려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거의 무료로 가까운 진료비를 받으며 의술을 펼쳤습니다. 무료로 하면 "무료의 대가는 바로 전도가 아니냐"며 따지는 바람에 무료로 진료는 못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돈을 받거나 저희가 돈을 준 후, 그 돈을 내게 하는 식으로 진료를 했지요.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의 후원자들이 이 병원의 운영을 가능케 해, 단 한번도 직원 월급을 밀리지 않으며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목(경부)
목근 강화는 목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C7까지의 무게를 견디는 목근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통상부
골은 통을 매달아 나사(허당사우렌 비전)와 함께 사용하며, 목근을 강화하고 목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목근을 사용하려면 더 힘써야 합니다.)

NEW BACK 30 DAY GUARANTEED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단동복지병원 개원식 모습

겠군" 생각하고 "이번엔 정말 확 들이받아 버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박 박사님,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들어갈수록 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화해,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낭패를 당하지 마시고 더 깊은 세상,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저도 영영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인연이 되었는지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도움을 구하려 하자 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며 "재미 동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며 적극 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거쳐 가시며 안면이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이 선뜻 협력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 제 집에 목사님들이 다녀 가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초로 영락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이후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며 친북주의자라는 오해도 받으시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제가 간증을 하면 "이 빨갱이야. 이번에는 공작금을 얼마나 받아 왔다? 무슨 지령을 받았나?"고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논할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평생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환자들을 치료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반공교육을 평생 받은 사람이고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풍토보수파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 온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확실히 주장합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역에 있어서 인도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관점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을 돕는 일에 있어서 정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개발이나 연평도 사태 등을 보면 북

한 지원에 대한 우리의 상황도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신앙에는 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샘 복지재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만큼 할 뿐입니다.

저는 23년간 북한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갖다 준 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지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며 "안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져다 주고 사신 한장 찍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물론 이런 불안정이 북한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욱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도 가장 큰 피해자는 시골, 산골, 압록강, 두만강의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샘 복지재단은 사랑의영양 특별식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지요?

이 제품은 궁극없는의사회가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보급하던 치료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의 문제는 바로 땅콩인데 어린이에게 땅콩 알러지가 있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동에 식품공장을 세우고 2년 동안 연구해 쌀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박테리아 검사를 100%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원인을 규명해 보니 바로 재료의 문제였습니다. "재



죽석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 식품인 사랑의영양특별식품

료가 문제라면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재료로 만들어 보자"는 시도를 하게 됐고 한국의 가장 큰 한 식품 회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한달 이내에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이 사랑의영양특별식품은 영어로 RUTF(Ready to Use Therapeutic Food)이며 죽석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 식품입니다. 포물라 형식으로 그냥 입으로 넘기기도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북한 뿐 아니라 전세계의 어디라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를 갈 때, 이 영양식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제품을 제작비만 받고 공급해 주고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드리려 합니다.

또 샘 복지재단이 제공하는 비타민이나 진통제 같은 간단한 의약품 패키지도 생산비와 배송비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선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여러 단체의 선교를 도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장로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 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데이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 성황



북한 어린이의 결핵 퇴치를 위한 후원의 밤이 크로스교회 주최로 열렸다.

결핵 퇴치 위해... 크로스교회 주최

크로스교회가 주최한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이 22일 오후 6시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후원의 밤은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의 목사를 비롯해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남가주사

랑의교회 고석찬 목사 등 교계 인사들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특히 의사들이 많이 참여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강준민 목사는 설교를 하는 자

리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만큼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변영의 목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만큼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크로스교회는 북한 현지에 기아치료제인 영양버터 공장과 비타민 공장을 가동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농촌에 진료소를 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크로스교회는 또한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비타민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대신 결핵약을 생산하기로 하고 결핵약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결핵 보균자가 5백만명에 달하며 매년 1백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먹지 못해 병균에 쉽게 노출돼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크로스교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결핵약을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기아치료제인 영양버터를 만들어 계속해서 제공해 줄 계획이다.

크로스교회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결핵약은 한달에 \$40이다.

문의: 714-603-9827
토마스 멩 기자

빛과소리교회 창립

"세상에 빛을 내는 교회되길"

교계 인사들 대거 참석해 축하



창립예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빛과소리교회(정기원 목사)가 창립예배를 19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 교회 당회장은 전재학 목사, 명예장로는 차준식 장로이다.

이날 말씀을 전한 변영의 목사는 "목회자는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사람과 물질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와 권면, 격려사를 전한 목회자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시끄러운 세상에 진리의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축복한다"고 밝혔다.

정기원 담임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사회에 정기원 목사, 대표기도에 김영모 목사(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 특송에 한명수 목사, 설교에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협 회

장), 헌금기도에 고귀남 목사(LA 연합수석부회장), 축사에 진유철 목사(교협 수석부회장), 강일용 목사(교협 부회장), 정요한 목사(교협 감사), 최학량 목사(교협 증경회장), 박효우 목사(목사회 전회장), 권면에 이상현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격려사에 김요한 목사(아가페선교회), 김영 이사장(한미 동포재단), 축도에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빛과소리교회는 LA 연합교회의 예배당을 빌려 쓴다. 한인교회가 한인교회에 예배 공간을 빌려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 두 교회는 경경 의식을 지양하고 서로 건강하게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한인교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일예배는 오후 3시에 있으며 주소는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이다.

문의: 213-700-5759
토마스 멩 기자

믿음의 비결은 바로 내려 놓음

은혜한인교회,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 초청 성회 개최



장학일 목사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믿음에 관해 설교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를 초청, 신년축복성회를 19일부터 22일까지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22일 오전예배에서 '장조적 믿음'(마태복음 9:27-3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장학일 목사는 "믿음만큼, 기대하는 만큼 이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다"며 "파스칼은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저절로 이뤄진다. 믿음의 본질

은 기대감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 믿음을 이뤄 주신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 목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며 "99살에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니 이뤄 주셨다. 믿음이 있다면 계속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 성경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가 없다. 말 한마디에 행복이 임한다"고 전했다.

나흘동안 열린 성회에서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많은 도전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토마스 멩 기자

미서부침례신학교 D.Min. 수업 진행돼

지난 20일 LA 퍼스트배티스트교회에서 진행된 미서부침례신학교 D.Min. 과정 수업에서 Flesher 학장이 비평적 해석학과 프로젝트 논문 진행법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미서부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West, ABSW)는 1871년 설립돼 올해로 140년 전통을 가진 명문신학교다. 1962년에 세워진 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초대 회원으로서 미국 서부에 세워진 침례교회의 전통 보수적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나성열린문교회 신년축복성회 개최




나성열린문교회의 신년성회에 온 성도들이 참석해 은혜를 받았다.

나성열린문교회(박현성 목사)가 2012 신년축복성회를 20일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초청된 강사는 인천동성교회의 박신범 목사이다.

박 목사는 20일 저녁집회에서 '열린 성도가 되자'(막 7:31-37)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인 줄 믿는다면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를 믿고 이를 알리기에 힘쓰는 천국 백성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나성열린문교회의 2012년 표어는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이다. 토마스 멩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아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역을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	--

예약 전화 : 562-965-5112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뛰어난 기술 많은데... 복음이 더딘 이유

인랜드교회, 홍성건 목사 초청 선교 컨퍼런스 개최



홍성건 목사가 인랜드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헌신과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가 '선교의 힘! 평신도 사역'이란 주제로 선교 컨퍼런스를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다. 강사는 YWAM 열방대학 책임자이자 동아시아 대표인 홍성건 목사

가 초청됐다. 홍 목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라며 "놀라

운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공위성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이용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용해서 직접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

기 원하신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지고 통신이 좋아져도 하나님은 한번에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반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목사는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라며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서쪽으로 옮겨 가면서 유럽인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국 중심으로 세계선교가 확 일어났다. 그 다음에 미 대륙으로 복음이 옮겨갔다. 이 성령의 불길은 또 서쪽으로 옮겨 가면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했다. 이 조그만 땅 덩어리, 조그만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 것이다"라고 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축복하신 것은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영적으로 아사 직전이고, 중국은 빈곤하고, 한국은 부유하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기 원하신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장경동 목사 "예수를 전하라"

임마누엘선교교회 LA복음화 대회 개최해



장경동 목사가 전도의 중요성에 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임마누엘선교교회(류종길 목사)에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하루 두 번 장경동 목사 초청 설날 맞이 LA 복음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제는 "LA를 그리스도에게로"이다.

장 목사는 설교 내내 계속되는 재치로 3백여 성도들을 말씀의 세계로 매료시켰다. 24일 저녁 집회에서 장 목사는 히9:22을 본문으로 "보혈"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는 "이곳 미국은 풍부한 나라다. 천국과 비교해서 부족한게 전혀 없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가? 그곳에는 열등감이 없고,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으며, 죄가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다. 세상보다 더 큰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마귀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전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다. 여러분의 평생 자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길 바라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경동 목사는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사우스베이선교교회(조종곤 목사)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

빅터 박 기자

"말씀에 이끌려 성령계 쓰임받자"

장재호 목사 기독일보 창간 8주년 기념 목회자 세미나



서울 성문교회 담임 장재호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8면으로부터 장 목사는 평생을 목회에 바친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주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좋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밝혔다.

또 "목회자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디를 가든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에 있어서는 "목회자는 자신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대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회자에게 교회 성장만이 중요하

지 않다. 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몇명이나 되는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며 목회하라"고 말했다. "말제간으로는 죄인 하나를 회개시킬 수 없다"며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목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의 제물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며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이끌리며 오로지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다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목사의 집회는 남가주 광영교회, 조이시티교회, 엠마오장로교회,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일바인 한민음교회 등에서 계속된다.

토마스 맹 기자

어머니 꿈땅 홀사모에게 심을



홀사모들에게 안식을 주는 어머니 꿈땅이 남가주에서 열리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어머니 꿈땅'이 제2기를 맞이해 16일부터 23일까지 에너하임 소재 브룩허스트 플라자호텔에서 12명의 홀사모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행사는 꿈땅비전센터(정한나 단장, 남가주광영교회 사모)가 주최해 홀사모와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꿈과 희망을 주는 19일부터 21일까지 호텔에서 특별 내적 치유 세미나가 진행됐

으며, 21일 오후에는 변명해 교수가 '홀사모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쳐 서로 간의 사정을 나누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어머니 꿈땅과 비슷한 어린이 꿈땅은 홀사모 자녀 중 초등 4학년에서 중3까지의 자녀들을 여름방학에 맞춰 미국에 한달여간 초청해 머물게 하며 새 희망을 주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올해 여름 또한 차례 계획되어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로고스선교회 남가주지회 개관



로고스선교회 남가주지회가 개관했다.

로고스선교회가 남가주지회(대표 크리스티나 정) 개관예배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교회 사무실에서 드렸다.

로고스선교회는 크리스찬저널, 기독교료상조회, 라모나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예배는 사회에 크리스티나 정 대표, 기도예 박세현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설교에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축사에 강승재 목사(CRC 원로목사),

인사말에 박도원 목사(로고스선교회 대표), 축도에 이동규 목사(로고스선교회 초대 이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변영익 목사는 "당장의 열매를 바라보기보다는 훗날 날마다 열매를 거두는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비추지는 일이 이 선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곧 창립 후 본격적 사역할 계획

→ 1면으로부터 계속 박용덕 목사는 "이 운동을 1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고 밝히며 "많은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OC목사회의 신종은 목사가 예배 인도, OC교협 회장 엄영민 목사가 설교, OC교협 이사장 윤성원 목사가 축

도를 맡는 등 OC 지역 목회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박용덕 목사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모인 목회자들이 모두 함께 미주의 영적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편, 박 목사는 "앞으로 남가주 전체 목사들을 모시고 뉴스피릿무브먼트 창립예배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빅터 박 기자

ATS 인준 셰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현 이민국에서는 R-1(종교비자), H-1B(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격을 연방정부 학력 인준 학교 기준에만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MDiv 및 DMin 과정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 모집

우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주재이자 20세기의 성경적 재발견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의 성장, 개파 운동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개파입니까'가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의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연례 셰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의성장, 개파도 분야에서 개파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역 간행과 내적 자유의 세계적인 권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개파로는 "깊은 생각을 자유아시는 하나님", "사적인 영을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례 셰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외장으로 연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맥 에이모드, 빌 브라이트 박사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체계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파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업의 기쁨부음", "변역" 등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담 및 입학문의
213-481-1313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제7회> 마태복음 3장 III

유동근
한국은누리신학교교회 목사



5-6절, 이때에 예루살렘은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시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전파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소리가 있지 않은가?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은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게 된다. 그래서 전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겠으며 듣지 않고서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것을 들을 때 속에 찔림이 있게 되고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며 따라서 자복이 일어나게 된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장사 지내는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이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끝낸다는 것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씻는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구약에는 씻는 예법이 있었다.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물 속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끝낸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 때에 와서 침례가 된 것이다.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야 된다. 사람들은 우리는 죽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살아 있을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더럽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끌려 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시로 스스로 가장 경건하다고 여기는 하나의 당파였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또 하나 '에세네'라는 파가 있었다. 이렇게 세 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타난다.

바리새인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생겨났고, 당시 성행했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하여 율법수호자들로 자처하고 나선 무리이다.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까지 모든 성경을 다 인정하고 거기 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무언가 경건하기 위한 많은 도덕적인 예법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 온 국민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도록 영향을 주고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은 자신들이 스스로 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것 같다. '바리새인'이란 분별된, 구별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원래 그들 자신은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의 당파로 형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에서 분리된 한 무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무리에 속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 자기들이 율

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가말리엘도 그 무리의 사람이다. 사울도 전환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되었다(막 3:6, 15:1).

그런데 사두개인은 다르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것은 다 믿지 않는다.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주의자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대제사장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이다. 아마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 자손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사독은 다윗 때 배반하지 않고 성전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사두개파들은 요한이 나왔을 당시 정치적인 세력과 힘을 많이 소유했던,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가 그에게 나아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도 종교적인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고자 하여 온 것은 절대 아니다. 저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한 번 알아볼 양으로, 속에 교만과 의견이 가득하여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전파한 자인 그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는가?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들만이 소위 '영적이다, 최고다', 또는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독의 심일조를 드리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주께 감사합니다.'(눅 18:9-14) 이렇게 말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또한 여러가지 짓고 뉘고 하는 예법이 많다. 많은 지키는 것들이 있었다. 하야간 신앙심이 가장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당시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자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멸시하는 것이다. 자기들 말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들이 새롭게 광야 요단강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을 리가 없다. 속에 뭔가 독한 교만과 시기가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요단강에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 한 것이다. 엄청 강하고 직선적인 말이다. 오늘 그 누가 점잖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겠는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런 사람들이 장래 당할 일은 진노밖에 없다는 말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는 싶은 것이지만 마음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

게는 침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세례를 주면 자복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요한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요한은 그들의 회개한다는 입술의 말도 믿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남이 하면 얼마든지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는 말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다. 그들에게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다. 이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 물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왜 그렇지 않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 이것이 그들 속에 품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한테 가도 죄인이라고 굽히지 않는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더 이상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뿐 실제로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바리새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대들었다. 여기서 요한의 말은 무엇인가? '너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 그들은 정말 돌이나 마참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된 그의 자손이 된 것이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좋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도끼밖에 없다. 도끼는 낫이나 칼과는 다르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뿌리까지 완전히 끝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운명은 도끼이다. 도끼는 아예 밑동을 끝내 버리는 것이다. 남김없이 끝내겠다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도끼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오랜 후에 도끼가 놓여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도끼가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경위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는가? 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로 찍을 뿐 아니라 다 불에 던진다고 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요한은 죄인들에 대해서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부담을 많이 가졌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같으면 가능성 없는 사람은 말도 안 한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 그러한 자들도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표시이다. 이런 자들 중에 회개한 한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지만 금홍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것은 요한의 겸손한 태도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고 주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의 성령과 불을 둘 다 성령의 방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의 불을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의 불은 성령을 수식하는 게 아니다. 앞의 물이 문자적인 물이듯이 뒤의 불은 문자적으로 불이어야 한다. 한 구절에서 물과 불을 하나는 상징적으로, 하나는 문자적으로 말할 리가 없다. 그리고 성령과 불이 한 가지 뜻이라면 굳이 두 가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세 단어에서, 물과 성령이 그대로 말해졌기 때문에 불도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의 10절과 12절에서 태우는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의 불만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의 불은 문자 그대로 불이라고 알면 된다. 따라서 주님은 두 종류의 침례를 주시는데, 하나는 성령 침례이고 또 하나는 불 침례이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언제 받는가? 천국이 시작될 때이다. 불 침례는 언제 받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서 천국이 끝날 때이다. 불 침례는 지옥 불에서 다 멸망한다는 뜻이다. 성령 세례는 사도 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부어 주었던 성령의 세례이다. 그것이 천국의 시작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강직한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 변호사
미국 유자격 및 유자격이망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LJ)석사학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원학 및 국제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제헌변호사 협회원
영양법원 및 세법상담 변호사
미주한인 변호사협회 임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회장
미국 상환권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ns, Brothman, Kuhn, & Heffner
국제거래/중재/이민/법률/영주권, 인, 해방

한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 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 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 항소

한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 위반)

한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17호
02-541-0556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디케어

CA License #0H66712

1947년생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에서는

MEDICARE SPECIAL NEED PLAN 이란.(SNPs) 이란

메디케어 스페셜 니드 플랜 (MEDICARE SPECIAL NEED PLAN)이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메디케어(MEDICARE) 건강 보험 플랜입니다. 플랜의 특징은 정부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치료에 대한 보장, 시력 보호, 청력 보호, 병원 방문시 교통편 제공, 한방 서비스 제공,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장하지 않는 처방약들을 보장 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운영 보험 회사에 따라 그 혜택이 매우 다양 합니다.

- C-SNPs — 특정한 만성질환을 앓거나 장애인을 위한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투석을 하는 경우 등).
- D-SNPs — 메디칼과 메디케어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SNP 플랜입니다.
- I-SNPs — 나싱홀 같은 특정한 의료시설에 있거나 집에 있지만 나싱홀에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의료 행위가 필요 하신 분을 위한 SNP플랜입니다.

2012년에 C-SNP 플랜은 캘리포니아에서 7 개의 COUNTY 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SNPs 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30개 카운티에서 운영 하고 있으며, I-SNPs는 약 5개의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NP 플랜의 목적은 플랜 제공자의 특별하고 전문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건강 보호 관리로 설계되어 SNP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 과 혜택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SNP 플랜은 원래의 플랜보다 더 저렴한 처방약 플랜과 추가적인 이익을 반드시 제공 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추가로 신청 할 수 있는 정부 보조 건강 플랜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 보장 혜택(80% 와 COPAY & COINSURANCE)이 부족 하므로 부족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부 보조 혜택을 각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첫번째가 메디칼(MEDI-CAL)을 통한 부족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메디칼 (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저 소득층을 위해 지원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건강 보험입니다. 메디칼(MEDI-CAL)은 메디케어(MEDICARE)의 부족 부분을(의료비 80%, COPAY, CO-INSURANCE)보충 합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를 받는 모든 수혜자는 매달 \$99.40의 보험료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메디칼(MEDI-CAL)의 혜택을 받게 되면 메디칼(MEDI-CAL)에서 \$99.40을 메디케어(MEDICARE)에 대신 지불 합니다. 또한 처방약 구매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그 할인 금액은 메디칼(MEDI-CAL)에서 처방약 회사에 지불 하게 됩니다.

- 메디칼(MEDI-CAL)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일반적인 자격 조건 만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을 받는 분은 무조건 MEDI-CAL의 자격자 입니다. 즉 6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혹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모든 공제전 싱글의 경우 \$830.00, 부부의 경우 \$1,407.2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개인 보유 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2. AGED & DIDABLED FEDERAL POVERTY LEVEL PROGRAM (A&D FPL): 만일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SSI 수령 자격이 없다면 A&D FPL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디칼(MEDI-CAL)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이어야 하며 싱글의 경우 개인 자산이 \$2,000.00 을 초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자산이 \$3,000.00 을 초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싱글의 경우 개인 소득이 \$1,138.00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의 경우 \$1,536.00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소셜 사무실에서 정 하여진 장애인 정의에 준 하여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3. MEDI-CAL WITH SHARE OF COST(SOC) 한달 소득이 SSI 기준 혹은 A&D FPL 보다 높은 경우나 개인 자산의 기준이 초과 하여 위 두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지 못 한다면 SOC MEDI-CAL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SOC 란 의료 행위시, 매달 본인 부담금을 지불 하여야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본인 부담금 외에는 MEDI-CAL이 적용되는 혜택을 보장 합니다. 일반적으로 SOC 금액은 매달 \$600 에서나 \$934.00 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는 프 로 그램 입니다. 2011 년 4월 부터는 SOC 가 있는 메디칼의 경우 더 이상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를 MEDI-CAL 에서 지불 하지 않습니다. SOC 가 있는 메디칼(MEDI-CAL)을 소지 하신 분들은 MEDICARE SAVINGS PROGRAM 을 통하여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에서 제외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 하고 있는 집, 자동차 1대, 일정 금액의 장례 비용등은 재산에서 제외 됩니다.

• 메디칼이 보장하는 의료 행위.

1. Physician visits 의사방문.
2. X-ray and laboratory tests, X 레이검사 및 의학실험실 검사
3. Hospital and nursing-home care 병원입원 및 전문간호시설 입원
4. Home health care 가정 건강 관리
5. 메디케어 파트 D 에서 제공 하지 않는 약.
6. Prosthetic and orthopedic devices * 인공 관절 및 정형 기구.
7. Medical equipment 메디칼 의료기기.
8. Ambulance services 응급차 서비스.
9. Hospice care, 말기 환자 관리.

메디칼(MEDI-CAL)은 의사가 메디칼 보험을 허용 한다면, 즉 메디칼 보험의 제공자라면 메디칼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서비스와 비용을 지불 할 것 입니다. 만일 당신이 메디칼(MEDI-CAL) 과 메디케어(MEDICARE)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MEDICARE) 보험은 메디칼에서 보장 하는 의료 혜택의 1차 보상을 해 주며, 메디칼(MEDI-CAL)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잔여 부분을 보장 할 것 입니다. 또한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은 메디케어(MEDICARE)에 있는 본인 부담금의 비용을 지불하고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 동시 수혜자는 원래의 플랜을 그대로 사용 할수 있고 또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 혹은 SNP 플랜에 가입 할수 있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칼(MEDI-CAL) 동시 수혜자는 의사나 병원이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 보험을 허용하는지 확인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보험카드와 메디칼(MEDI-CAL) 보험카드(BC)카드를 의사나 병원에 의료 서비스 제공 전에 제출 하여야 하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메디케어(MEDICARE) 보험과 메디칼(MEDI-CAL) 보험에 서비스 비용을 직접 청구 하게 됩니다. 메디칼(MEDI-CAL) 보험 과 메디케어(MEDICARE) 보험은 직접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메디케어(MEDICARE) 파트 C 플랜을 선택 한다면 당신의 메디칼(MEDI-CAL) 보험카드(BC)를 메디케어(MEDICARE) 파트 C 플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 하십시오. 그러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메디케어(MEDICARE) 파트 C 플랜의 DEDUCTIBLE 이나 본인 부담금등 의료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메디칼(MEDI-CAL) 보험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메디칼(MEDI-CAL) 보험보장의 변화로 DHCS 는 더이상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 하지 않습니다. 2009년 7월 1일 치과치료, 한방침, 청력학, 언어교정서비스, 척추교정서비스, 시력및 안경제공서비스, 발병치료서비스, 심리서비스, 요실금 크렐이나 청결제 등의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모든 메디칼(MEDI-CAL)은 아직 변화지 않고 있지만 빠른 기간 내에 큰 메디칼(MEDI-CAL)의 혜택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간호시설이나 21세 미만— 입산부 입산부와 관련된 의료서비스는 상기의 메디칼(MEDI-CAL) 혜택 축소에서 제외 됩니다.

만일 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칼(MEDI-CAL)은 대부분 처방약을 처방약 플랜(MEDICARE PART D) 통해 보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칼(MEDI-CAL)은 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아래의 약을 보장 합니다. 그러나 2012년 캘리포니아 예산 삭감으로 많은처방약 전이 감소 할 예정 입니다.

- Benzodiazepines (Xanax, Valium and other drugs often used for anxiety and insomnia) 신경안정제 나 수면제
- Barbiturates (often used for seizure disorders and to relieve anxiety) 간질이나 불안에 대한 진정 수면제
- Drugs used for anorexia, weight loss and weight gain 식욕부진 다이어트 약, 식욕 증진에대한 약
- Drugs used for smoking cessation 금연약
- Certain cough and cold drugs 기침 감기약
- Certain over-the-counter drugs 처방전이 필요 없는약
- Vitamins and minerals 영양제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SNP 플랜 이란.

SNP 플랜이란 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칼(MEDI-CAL)에서 보장 하지 않는 의료부문을 보장 하는 건강 보험입니다.

1. 치료보장: 가입하는 SNP 플랜에서 가입자를 위해 치료보장 에서 정하는 혜택 범위에 따라 가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치료 보험 카드를 가지고 치료에 가시면 무료로 치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 보험에 가입된 의사에게 방문 하여야 합니다.
2. 인경: 플랜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300.00 까지 보장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매년 \$300.00 의 인경을 본인부담 없이 구입 할수 있습니다.
3. 시력검사 청력검사: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장 하지 않는 시력, 청력 검사를 하 실 수 있습니다.
4. 보청기: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 에서 보장 하지 않는 보청기를 최대 1년에 \$750.00 까지 지원 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5. 헬스클럽 멤버십: 수영장과 사우나가 준비된 헬스클럽에 연간회원권을 제공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권은 \$350 정도 입니다. 무료로 헬스 클럽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6. 병원의료 환자 운송: 고령의 운전이 불편한 메디케어(MEDICARE) / 메디칼(MEDI-CAL) 수혜자가 가는 어려움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방문시 교통편 입니다. 의료관계 기관으로 교통편을 제공 하므로써 자녀나 다른 분 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SNP 플랜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통편을 이용 하시면 매우 편리 합니다.
7. OVER THE COUNTER : SNP 플랜은 처방전이 필요 하지 않는 감기약 등 마켓에서 판매하는 약을 각 회사마다 일정 금액 까지 매달 보조 하여 드립니다.
8. 한방 침술: SNP 플랜에 가입 하셔서 한방침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 싶어요.
10.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 (OVER THE COUNTER): 처방약 프로그램에서 보장하지 않는 처방약을 각 SNP 플랜에 따라 보장 하는 보장 범위가 \$25.00 부터 \$50.00 까지 매우 다양 합니다.

SNP 플랜의 자격을 갖추신 메디칼(MEDI-CAL) 과 메디케어(MEDICARE)를 동시에 가진분들은 저희 하나 헬스 보험에 전화 하셔서 자세하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칼(MEDI-CAL)을 처음 받는 분 들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처음 도착한것과 같은 느낌 입니다. 저희 하나 헬스 직원은 귀하의 메디케어 건강 플랜의 안내자 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하나 헬스 보험 직원 일동.

메디케어 세미나 일정

JAN 28 장소: LA사무실
시간: 오전10시

FEB 04 장소: OC사무실
시간: 오전10시

FEB 11 장소: Torrance사무실
시간: 오전10시

하나 헬스 대표 데이빗 강 라디오 메디케어 세미나 스케줄

JAN 31 오후 1시 라이브 데스크
질의 응답 시간/ 라디오 코리아

FEB 08 오전 11시 아침마당
라디오 코리아

고객서비스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새로운 에이전트 모집 전문교육 제공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
LOS ANGELES, CA 90010
2350 W SEPULVEDA BL, #A,
TORRANCE, CA 90501 (금요일근무)

IRVINE 사무실



ALLEN MIN
LIC.#0D19973
Tel. 714-815-5933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TORRANCE 사무실



DISRICT MANAGER :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6

20695 S.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
MI YOUNG HONG
LIC.#0672051
Tel. 714-715-6345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일보 창간 8주년 “복음의 진리 전하는 선교의 도구 되라”

교계 인사 및 지도자 참석해 축하하고 격려

기독교일보가 창간 8주년을 기념해 23일 오후 4시 JJ그랜드호텔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는 70여명의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고, 이인규 국장이 목회자들의 축복안수기도를 받으며 발행인에 취임했다.

김준형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대표기도는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성경봉독은 김원락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회계), 특송은 이은수 목사(찬양사역자), 설교는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축사는 김영모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 권면은 엄영민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도는 최학량 목사(LA한미친선연합회 회장)가 맡았다.

민중기 목사는 “그동안 임직원들이 선교사적 열정을 갖고 이민 사회에 복음을 나르는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칭찬한 후,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문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박희민 목사는 “기독교 언론의 사명”(답후4:1-5)이란 말씀에서 “기독교 언론의 사명은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증거, 바른 가치관과 비전 확산, 경건으로 인도하는 지평의 역할, 교계 연합과 일치 추구”라고 정리한 후, “기독교일보가 앞으로도 교계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신문사가 되길 축복한다”고 덧붙였다.

말씀에 앞서서는 이은수 목사가 자신의 대표곡인 “너는 내 아들이

라”를 특송해 큰 은혜를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영모 목사는 “아름다운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전하는 기독교 언론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했다. 강순영 목사는 “기독교일은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전 미주를 커버하는 신문이 됐다”고 평한 후, “2세 사역과 부흥 운동,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달라”고 권했다.

권면은 전한 엄영민 목사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의 호평을 받는 신문”이라 평한 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기독교 커뮤니티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확대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특히 이날은 이인규 국장이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원래는 8년째 편집고문을 맡고 있는 박희민 목사가 이를 선포하는 기도를 할 예정이었으나, 박 목사가 즉석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축복하며 안수기도하자”고 제안해 더욱 뜨거운 은혜의 장이 마련됐다. 이 발행인은 “저희가 복음의 나팔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장재효 목사(서울 성은교회 당회장)가 특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고, 최병수 목사(GSMC 미니스트리 대표)가 인사기도를 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일보 창간 때부터 함께 문서선교에 앞장서 온 동역자들이었다. 8



기독교일보 창간 8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한 주요 교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년 내내 편집고문을 맡아 기독교일보의 보도와 취재에 조언을 해 온 박희민 목사는 설교에서 “나성영락교회를 담임하던 때에 김준형 국장이 찾아와 기독교 신문을 하고 싶었다 했을 때, 다른 신문과 동일한 신문을 만들려면 차라리 만들지 말라고 조언했다”며 “8년동안 다른 신문과 차별화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칭찬했다. 박 목사와 민중기 목사 역시 초창기부터 편집고문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날 참석은 못했지만 박기호 교수, 고승희 목사도 8년째 편집고문으로 있다.

토마스 맵 기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신임 이인규 발행인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장재효 목사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장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이어갔다.

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수) 총회장과 국제신학대학원 초대총장을 역임했으며 성은동산 원장, 선교회 회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를 맡고 있다. → 5면에 추가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역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번비루,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www.gstlc.edu.com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1-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의료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에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전문의료인이 되려면 장기간의 의학 수업이 필요하며 과다한 학비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다양한 의학분야의 필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기 위해 의료선교사 육성,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신청자격: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있는 남녀

- 모집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를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모집인원: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함)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교육기간: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2012년 1월 31일

개강일자: 2012년 2월 5일

교육장소: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부활교회(아리랑마켓 뒤)

접수처: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내용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치료술)

1. 근육 교정학: 각종 통증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자연식요법 (난치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의 수기치료 교육은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 전문 치료를 종합 교육하므로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의료선교사 육성 교육 기관입니다. 손을 사용한 치료 방법은 주님이 기적을 보이신 능력의 은사와 동일합니다.

수료 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s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달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하나님이주신신앙행복한교회마리키아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침례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찬양과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아침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Los Angeles,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저녁기도회 오후 7:00 (월-목)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강증형교회, 행복찬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집회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미청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쳐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라카르티스(대니얼)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리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기위해의 가치를 보낸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7:0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EM) 오후 2: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30 월일예배 오후 7:30 (수)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집회 오후 7:30 (매일 둘째 금)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472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714)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요셉선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T. (213) 245-4090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염규서 담임목사**
2부예배(EM)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월셔크리스천교회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심술) 수요예배 오후 7:45
오후 12:30 (분방)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감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반동성에 PCUSA 교회들, ECO 교단 창립 막가는 월가시위대 교회 훼손·도난까지

올랜도에서 두번째 총회 갖고 구체적인 신학노선과 사역 방향 밝혀

지난 해 교단 내 '동성에 성직자 임명 허용'에 반대하는 미국장로교(PCUSA) 보수성향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로교 인연의회(Fellowship of Presbyterians, 이하 펠로십)의 향후 신학적 노선과 방향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두 번째 전체 대회에는 미국 49개 주 500개 이상의 교회에서 2,150여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 다양한 사역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선교를 위해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 이튿날 펠로십 측은 "앞으로 PCUSA 내에 남아있는 회중과 떠나기로 결정한 회중 모두를 지원하고 연결하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서 펠로십 측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헌신적 조직인 The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이하 ECO)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CO는 앞으로 펠로십 내의 독립적인 교파로 교회와 지도자들을 지원해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고, 책임감있는 지도자들의 관계를 세우고 연결하며, 교회 성장을 위한 재고, 리더십 트레이닝 그리고 기존 PCUSA보다 간소화된 법률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십 구성이 본격화 되면서 의문을 낳았던 PCUSA와의 관계에 있어 펠로십 측은 세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각 회중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는 PCUSA에 속한 상태에서 사역에 있어 펠로십과 협력하는 방법, 둘째는 PCUSA와 ECO에 동시에 속해 연합된 멤버십을 갖는 방법, 셋째는 PCUSA를 떠나 ECO에만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법이다.

한편, 대회에 앞서 지난 17-18일 45세 이하 젊은 목회자 275명을 초청해 열렸던 사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젊은 지도자들을 육성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재 PCUSA 내 40세 이하 목회자들은 7퍼센트에 불과해 교단의 혁신과 역동성을 추구하는데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펠로십은 새로운 교파를 통해 복음을 가슴에 품은 새로운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역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올랜도 총회 주강사로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NCKPC) 회장 고태형 목사(캘리포니아 선한목자장로교회)를 비롯, 호프 리 목사(플로리다 컬트우드장로교회), 존 오토버그 목사(캘리포니아 멘로파크장로교회), 아테프 겐디 박사(이집트 북음신학대학원 총장), 짐 싱클톤과 케티 데이론 목사(콜로라도 퍼스트장로교회) 등이었다.

한편, 이 때를 맞아 PCUSA 지도부는 교단의 동성애자 성직 임명에 반대해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에 생각을 바꿔줄 것을 호소했다.

총회장(Moderator) 신시아 불바크 장로와 부총회장 랜든 윗시 장로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34분 가량의 영상을 통해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우리의 주로 선



펠로십이 ECO를 창립하며 그 사역의 방향과 노선을 설정하는 모임을 열었다.

PCUSA와 ECO 간 관계 설정도 주목

포하는 일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며 교단을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계획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성경적 기반에 있는 행동이 아니다"며 "보여지는 단 한면만이 여러분이 고려하는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한도 발표했다.

이같은 영상과 서한은 18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린 펠로십 모임에 맞춰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의 호소와 관련, 펠로십 측은 "우리의 모임은 교단 탈퇴와 동언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영상과 서한을 통한 메시지는) PCUSA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진지한 우려로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PCUSA에서는 동성애자 성직 임명의 길을 열어 놓은 개헌안이 통과된 이래로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증가해 왔다. 교단 지도부의 호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가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 중인 마크 페터슨 목사는 "비록 교단을 지키려는 지도부의 의도는 높이 사나, 이들은 동성애자 성직 임명에 반대해 나가는 이들을 '한 면만을 보고 눈이 먼 이들'처럼 묘사하는 반면 계속 남아 있기를 선택하는 이들을 온전하고 바른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각과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손현정 기자

월가시위대가 최근 교회 물건을 훼손, 도난하는 것은 물론 교회 내부에서 방노해 소변이 십자가에 묻는 등 악행이 적발돼, 혐조하던 일부 교회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맨하탄에 위치한 웨스트팩장로교회는 60여명의 시위대가 교회에 머물게 배려했지만, 최근 제단 기구인 정동 투경과 그릇, 목회자의 랩탑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답입 로버트 브래셔 목사는 "동네에 마약 중독자들이 가득했던 1980년대에도 특정 종교의 상징물 같은 것은 훼손되거나 도난된 적이 없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브래셔 목사는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집단적인 처벌을 가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다시 한번 물건이 도난되거나 훼손된다면, 더이상 교회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위대 측은 "장인을 고용해 잃어버린 종교상징물을 대체하겠다"고 즉각 사과하며, "목회자의 도난당한 애플맥북의 가격인 2,400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시위대 측은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2주 안에 교회를 비우겠다"고 했다.

한편, 브루클린 지역 팍슬롭장로교회도 시위대가 교회 건물에 신성모독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월가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 체임 그루버 목사는 교단 뉴욕총회 웹사이트에 장문의 편지를 적어 "한 시위대원이 교회 안에서 소변을 뒀고, 그 소변이 십자가에 묻는 일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는 "조기 내 가 존중했던 시위대의 가치가 상실됐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나라 기자

北 조그런 위원장 강영섭 사망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중앙위원장 강영섭(80)이 21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강영섭은 남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방문 때마다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카운트 파트너' 역할을 해 온 인물로, 강일성의 외종숙이자 강락옥 전 국가부주석의 아들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인 강영섭은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위원, 평양신학원 원장 등도 맡고 있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와 조선종교인협의회,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는 공동 명의의 부고를 내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는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섭은 지난해 9월 남한 종교인 대표단 방북시 김영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배석한 바 있다. 11월 불수교회에서 열린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북한은 오픈도어선교회 선정 '기독교 박해지수' 10년 연속 1위 국가다.

이대용 기자

조엘 오스틴 "몰몬교 롬니도 나같은 그리스도인"

방송서 "그도 예수가 구세주이심 믿는다" 밝혀, 논란 예상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텍사스 레이크우드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공화당 경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대해 비록 몰몬교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 신자(a believer in Christ like me)"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CBS This Morning' 방송에 출연, 롬니 전 주지사와 그의 몰몬교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아 "내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



조엘 오스틴 목사

나섰고 그는 나의 구세주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그리스도 신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스틴 목사는 "그 사실이 당신에게 (롬니 전 주지사를 그리스도 신자로 볼 이유로) 충분한가?"라고 되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게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모든 종교에는 차이점이 있다. 나는 몰몬교가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스틴 목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복음주의 교인이라 해도 몰몬교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롬니 전 주지사의 몰몬교 신앙은 공화당 경선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수용과 거부라는 두 반대되는 반응

을 일으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자신의 몰몬교 신앙과 관련, 지난 2006년 행한 연설을 통해 "몰몬교와 기독교는 각자의 고유한 교리와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의 관용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며 "내가 속한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른 교회들과 모든 면에서 같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손현정 기자

북한, 40년 연속 최악의 자유없는 국가로 선정

한국은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돼

한국은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돼

북한이 40년 연속 전세계 최악의 '자유 없는 국가'에 선정됐다.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19일 발표한 '2012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195개국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와 같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항목에서 최하점인 7점을 기록했으며, 기본적으로 대한 믿음이 다른 교회들과 모든 면에서 같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등과 함께 최고점을 받아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프리덤하우스 사라 록 아시아인구 분석관은 "북한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화폐개혁과 장마당 때문에 다소 나아졌는지 몰라도 전반적인 자유를 봤을 때 나아진 것이 없다"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로운 국가' 평가 기준으로 제약 없는 정치 경쟁과 주민 존중 분위기, 주민들의 독립적인 삶, 언론의 독립 등을 본다.

이대용 기자

공 고

합동개혁장로교회(ARPC) 태평양노회는
아래 6명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5년간 근신할 것을 노회가 결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전 노 회장	임의치 목사
전 서 기	진석호 목사
전 부 서 기	박만순 목사
전 회 록 서 기	김억봉 목사
전 부 회 록 서 기	황순정 목사
전 역 사 가	정사드락 목사

2012년 1월 21일

태평양노회 노회장 김종원 목사
서 기 이상길 목사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 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slu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p>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p> <p>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p>	<p>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p> <p>***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p>
---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 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치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번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제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요나서의 교훈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던 것만큼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대중 전한 말씀을 통하여 기적같은 회개를 이루십니다. 그는 3일 동안 전도하여야 할 큰 성을 하루 만에 전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성실한 전도를 통하여 엄청난 회심을 이룹니다. 선교사 요나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앗시리아가 회개하고 멸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고 죽여 달라고 말하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의 심각한 죄악을 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는 북쪽의 앗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읍바 항구에서 '다시스', 지금의 서쪽 땅끝인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 다.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는 제비뽑기에 당첨되어 바다로 던져 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해변에 토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선교 소명은 다시 요나에게 임하였고, 요나는 이제 순종하여 니느웨로 행진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3일길을 줄여 1일을 전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집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앗시리아의 멸망은 100년 정도 미루어 집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불성실한 선교사였던 요나를 사용

하십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보다는 선지자의 독특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선교에 있어서 중심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의 사람을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부족하고 작더라도 우리의 최소한의 헌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위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장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억울한 누명을 해명하거나 남 모르게 선 행을 했다고 알릴 수도 없다. 그러나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할 말이 너무도 많다.

“아쉽다. 좀더 오래 살면서 선한 일들을 계속 했으면 우리 주위가 더 밝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을텐데”하며 애석해 한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태준 씨 같은 분이 다. 516 혁명의 주체이면서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얻어 세계적인 포항제철을 세워 한국 근대화의 일등 공신이 되었고 후에는 정치인으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깨끗하게 국가에 헌신했다. 심지어 돈봉치인 포항제철의 주식을 한 주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유족들이 장례비를 걱정할 정도였다니 오늘날처럼 흔탁한 정치계나 기업인들에게는 새벽별처럼 빛났다.

또 한 분이 있다. 한국 교계의 대부였던 환경적 목사다. 그 분은 초대교회에 사무하면서 많은 사립학교를 비롯해 10여 곳의 이사회장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의 형제나 자녀들이 그 분의 영향력으로 어느 직장에서 거들먹거리

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 분은 청빈하게 살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나 섬기는 자세였다. 오늘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계에 그 분이 불로초라도 드시고 오래 사시며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좀더 보여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다. 그런 분들이 남긴 진한 향기는 두고 두고 오래 간다.

“잘 죽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렸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무서운 죄목을 씌워 무수하게 죽이다가 사살 당한 독재자 카다피나 또한 인민공화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일가친척으로 높은 성을 쌓고 수백만명이 굶어 죽는데도 상대에 걸쳐 특별한 왕국을 세우고 궁궐에서 외제 양주를 마시며 미인부대를 거느리고 허세를 부리던 김정일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했다.

자신이 죽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살아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 알프레드 노벨이다. 그는 1882년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 그가 발명한 엄청난 폭발물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대박을 터뜨려 초수퍼 부자가 되었고 재산은 자녀께나 늘어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어느날 불란서를 여행하던 중 한 호텔에서 아침 신문을 보다가 기절할 뻔 했다. 첫 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다이내마이트 발명자 노벨 사망”이라는 제목이었다. 더욱이 그 기사 내용은 그를 괴롭혔다. 다이내마이트가 좋은 일에도 쓰이지만 전쟁에 쓰여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후에 안 일이지만 그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오보가 된 것이다) 노벨은 많은 생각 끝에 한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을 위해 자기의 재산과 여생을 바치기로 한 것이다.

내가 숨을 거두면 주위 사람들이 어떤 코멘트를 할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말이다. 사실 그 답은 나의 관 뚜껑을 덮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할 몫이다. 자신은 오직 죽을 때까지 주를 믿으며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 뿐이다.

나 자신의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몫

타인을 위한

선행의 삶 살아야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중세기 유럽을 350년간 지배하면서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가문(家門)이 메디치(Medici)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문화 혁명을 주도한 실세이고 수많은 정치인, 종교인, 과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을 낳은 자랑스러운 유럽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메디치 가문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인재를 사랑하고, 사람을 양성하는데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지 않았다면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마키아벨리 같은 예술의 대가들은 결코 오늘날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거대하게 다가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대를 관통해서 흐르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워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던 위대한 메디치 가문이 뛰어난 실력과 평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다빈치는 스승과 함께 너무나 유명한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리게 됩니다. 스승은 유능한 어린 제자와의 동반 작업이 가슴 뿌듯한 작은 즐거움이였겠지만, 이 시도는 결국 베로키오로 하여금 붓을 꺾고 다시는 화구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십대의 다빈치는 이미 자신이 범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신의 경지에 들어선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토록 인재를 귀하게 여기던 메디치 가문에서 군계일학의 다빈치를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빈치보다 못한 베로키오 공방의 문하생들에게는 엄청난 지원과 일자리 소개를 마다하지 않던 메디치 가의 사람들이 유독 다빈치만큼만은 지독하게 박대할 것입니다. 덕분에 배고픈 다빈치는 한 때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보잘 것 없는 출신 성분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당돌하고 건방진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하는 신동(神童)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어떤 작품도 끝까지 완성해 본 적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미완의 걸작품들”을 분신처럼 남겨 놓았을 뿐입니다.

때문에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은 그를 “빛깔 좋은 개살구” 정도로 낮잡아 본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계 2:10)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산한의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척추전문
자생 한방병원

www.jasengusa.com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 한방병원

KCAL 9 선정 **대체의학분야 대상**



척추가 바로서야 성적도 바로선다

수험생 척추 클리닉 **오픈기념**

무료 X-Ray 검진 및 상담
(2월 한달간)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편집위원
대표원장 **윤제필**

자생 척추건강 캠페인 홍보대사
PGA 프로골퍼
최경주

자생만의 양, 한방 치료 센터

척추, 관절센터

추나약물요법, 동작침법(MSAT), 추나수기요법

- 목, 허리 디스크 클리닉 • 턱관절 클리닉(TMJ)
- 오십견, 무릎관절 클리닉 • 청소년 척만증 및 성장 클리닉 • 수험생 클리닉

웰니스센터

- 난임 클리닉 (IVF 보조 프로그램) • 산전 산후 클리닉
- 힐링 다이어트 클리닉 • 한방 피부 클리닉

카이로 프랙틱센터

상경추 및 자세교정 전문 클리닉

자생한방병원 입원집중치료

통원치료에 아쉬움이 남으셨다면 담당 원장님과 상담하십시오
자생한방병원 **한국분원**에서 **입원집중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추나약물치료와 추나교정치료
 - ✓ 체계적인 동작침과 봉침치료(미국러쉬대학병원 공동연구)
 - ✓ 일대일 운동치료 및 한방물리치료
- 입원치료 고객 항공권(대한항공, 아시아나) 할인구매 가능

수험생 척추 클리닉

수험생의 70%가 척추관련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치료, 예방까지 한번에, 수험생척추클리닉의 토달케어서비스

- 1단계 : 양한방 공동검진
정밀 검진 및 구조적 문제파악
- 2단계 : 집중력 향상과 평생척추건강 완성
통증제거, 척추관절구조교정, 내과질환치료
- 3단계 : 집중력강화 솔루션
집중력향상을 위한 처방 및 운동설계



청소년기에 시작한 척추의 집중관리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유해성분이 전혀없는 미국 FDA 등록된 한약을 사용합니다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전문

이지초이스 HMO 지정병원
직장상해, 여행자보험, 학생보험 및 각종보험 무료조회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 양,한방 통합 치료센터 (한의학, 정형외과, 카이로프랙틱)
- 자생 디스크 치료약물 신바로메틴 미국물질특허 획득
- 자생 동작침법(MSAT) 미시간주립대와 공동연구 진행
- 한국 자생한방병원에서 직접 파견한 의료원장 상주
- 한국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플러튼 메인분원



LA 분원



20여명의 전문 의료진과 스태프

샌디에고 분원

858)752-1815

5222 Balboa Ave, Suite 73
San Diego, CA 92117

LA 분원

323)677-4900

5901 W. Olympic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36

플러튼 분원

714)773-7000

1960 Sunnycrest Drive, Suite 2000,
Fullerton, CA 92835

산호세 분원

408)645-8232

2858 Stevens Creek Blvd, Suite 208,
San Jose, CA 95128

초진상담비 무료쿠폰
본 쿠폰을 가져오시면
초진상담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체,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 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지)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업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 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나 플러밍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반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SAS Afterschool

Pick up, 건강한 집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785.2427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백인 중심 의회에서 재선된 마크 김 하원의원 “정치는 목자 리더십으로”

(VA, 민주)

주의회 개원 앞서 열린 연례조찬기도회 대표기도 맡기도

최근 버지니아 주 의회 개원에 앞서 열린 11일 연례조찬기도회에서 대표기도를 맡은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로 많이 준비했다.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1988년 대학졸업반 때 미 정계에 첫 발을 들여 놓았고, 2009년에 400년 버지니아 주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인 주 하원의원이 됐다. 지난해 3월에는 민주당이 선정한 10명의 떠오르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으며, 2011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신앙에 대해 “정교분리 원리에 입각해 종교가 정치에 크게 관여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감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김 의원은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 월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다시 호주와 미국의 이민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태신앙이지만 한때 신앙의 방황기를 거치기도 했다는 김 의원은 “의심했지만 다시 돌아온 경험 때문에 이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는 매주 수요일 주 하원의장, 주지사, 부주지사, 법무부장관이 함께 하는 아침 성경공부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위에 관계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의회에서 누리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과 의 인터뷰 전문.

-얼마 전 버지니아 하원 연례조찬기도회에서 대표기도를 했다.

큰 영광이었다.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드러나면 안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 1천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보수적 백인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9년 당시 아시아계 첫 당선자였는데 현재 의회에 아시아인은 몇 명이 있나?

나를 포함해서 2명이다. 이번엔 당선된 필리핀계 의원이 있다. 100명 중 백인이 대부분이고 흑인계 정치인이 13명 정도 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6일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기를 마치는 때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다른 종교인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기독교 색채가 강하지 않은 기도를 하려고 했다. 많은 도전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백인이든 이민자이든 주지사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했다.

-정치인으로서 신앙을 밝히는 것이 망설여지지 않나?

정교분리 면에서 너무 밝힐 것은 아니지만 숨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회자 자녀로서 기독교 비전 입각한 정치 구현

백악관 임명직 사양 후 하원 출마해 2선 이뤄내

-개인 신앙 여정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나?

신앙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태신앙을 통해 꾸준히 신앙을 이어온 경우와 하루 아침에 드라마틱한 체험을 해서 변환된 경우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심이 없었다. 그러다 10대 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이 곤욕을 치르며 살까’하는 마음이 들었다. 재정적 어려움이 몰려 오고 육체적 피로감이 지속되면서 왜 우리를 더 평화롭게 하지 않나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방황했다.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세상의 힘든 것, 가난한 것, 전쟁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하고 가족이 헤어지고 술, 담배와 유혹에 빠지는 삶을 직접 보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나의 역할과 미션을 더 뚜렷하게 한 시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모태신앙이 더 강해졌다. 성경을 알았다가 한번 의심하고 다시 믿기 시작해서 그런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앙에 기반한 신념이 정치를 하면서도 드러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다가갈 일하신다는 것을 늘 되새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 나의 삶이 온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특별히 없는, 어떤 면에서 봐도 성공할 사람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실패했었고 실

패할 사람이었다. 특히 버지니아 주 의회는 400년 역사를 가진, 백인 중심의 보수적인 의회로 유명하다. 대대로 정치한 집안에서 정치인이 뽑히는 경우가 많다.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후 정치적 최종 목표나 계획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원의원에 2번이나 당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대선캠페인을 패어팩스 지구에서 도왔다. 그가 당선되면서 백악관 임명직으로 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따로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25년간 한 우물만 봤는데 그만큼 의미있는 뭇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하원의원 남은 임기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원의원은 주로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소수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에 기반한 법을 제정하고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범죄인의 권리를 말해 주는 미란다 원칙의 경우, 체포 대상이 이민자인 것이 확실할 때 해당 언어로 준비된 미란다 원칙 서류를 준비해 간다든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에 예수님이 같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늘 떠올리면서, 이 땅의 예수님을 가난한 자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

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정치인을 꿈꾸는 차세대들에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정치란 시와 때가 있다. 주변 지구에서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대우는 커녕 어떤 때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도 많지 않다. 정치인보다 사회봉사인으로 보는 것이 낫다.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에고(Ego) 때문이라면, 돈을 많이 벌고, 대우를 받는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다.

정치인은 왕이 아니라 목자가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양은 사회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다루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목자는 양이 따라 오지만 명령만 하고 지시하기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진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이끄는 기술이 정치에 필요하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권나라 기자

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대한항공 행사(www.yonhap.com) [조인스이메리카 선정]
"2년 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Comcas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 대체!

이·토·크·비·비
iTalkBB
Billing Statement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24.99

지금 **3개월 무료!**
(최대 \$150 상당)
행사기간 2012년 1월 31일 까지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분
-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은 분
- 전화 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24.99/월

부가서비스
My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중국 070 번호 무료 제공!
내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번호로 호환하여
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월당 5000원**

플랜	iTalkBB \$24.99	Comcast \$49.99	Verizon \$49.99
미국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 전화	무제한	추가요금	불포함
한국 로컬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포함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포함	불가능
별도 부가금(세금 등)	없음	있음	있음
15개월 총금액	\$374.85	\$749.85+별도 부가금	\$749.85+별도 부가금
프로모션	3개월 무료	없음	없음

1.800.872.2902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30%** [환율 보장]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만 한합니다.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무료가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메시지 요금(\$69.99)과 보상 받으신 총 금액 합산 부과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약관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환율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인터넷과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메시지 이미 납부한 월 이용되는 한불 되실 것입니다. 무제한 통화 2인 1인 제에는 견본비(\$29.99)가 부과됩니다. 유선 전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 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기간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민내 배정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 **703.349.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H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2012 임진년 새해에는
고객님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 하시길
저희 임직원 모두 소원합니다.
800대를 수용하는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2012 NEW
GENESIS



2012
NEW EQUUS

에쿠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딜러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예약 : 제니김



General Manager
쉐리 워터스



Sales Manager
저스틴 길



Fleet Manager
찰리 정



Sales
케빈 김



Sales
맥스 정



Sales
스티브 장



Customer Care
제니 김

현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펜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이자율
2.49%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H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2012 NEW
MAZDA3 **ZOOM-ZOOM**



New 2011 MAZDA Miatas VIN:215474
MSRP \$29,655
MPH Discount* \$5,157
Mazda Loyalty Rebate** \$500



*Dealer participation in lieu of 0% APR Financing.
**Must have Mazda currently registered at same address

SPECIAL RATE 0%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